

# 작년 K리그 골결정력 최고팀은 수원FC...FC서울이 꼴찌

프로축구연맹 2022 K리그 테크니컬 리포트

수원FC, 기댓값에 비해 12골 이상 더 넣어

위치 선정 능력 뛰어난 선수는 대구 고재현

FC서울, 기대득점에 비해 7.8골 못 넣어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1에서 가장 골 결정력이 뛰어났던 팀은 수원FC로 나타났다. 반면 골 결정력이 가장 부족했던 팀은 FC서울이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2022시즌 K리그의 경기 데이터와 전술, 전략을 분석한 보고서 '2022 K리그 테크니컬 리포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좋은 골 결정력을 보인 팀은 수원FC였다.

수원FC의 기대득점 값은 41.4골이었지만 실제 수원FC가 터뜨린 골은 54골이었다. 기

댓값에 비해 12골 넘게 더 득점한 것이다.

수원FC는 리그에서 3번째로 적은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높은 결정력을 바탕으로 전북과 함께 리그에서 2번째로 많은 골을 넣었다.

핵심은 이승우다. 이승우의 기대득점 값은 7.47골이었지만 실제 득점은 14골이었다. 이승우는 리그 전체에서 기대득점 대비 실득점 수가 가장 많은 선수로 집계됐다.

이승우는 과감한 슈팅과 유연한 몸놀림을 통해 골을 뽑아내는 상황이 많았다. 이승우는 상대 수비가 앞에 있거나 정상적인 슈팅이 어려운 자세에서도 과감한 시도를 통해

골을 뽑아냈다.

이승우 외에 정재용과 김현이 기대득점 대비 높은 실득점 값을 보이며 수원FC를 득점 2위까지 끌어올렸다.

강원FC도 기대득점 대비 8골에 가까운 득점을 더 뽑아내며 50골 이상 득점했다. 김대원이 기대득점 대비 가장 많은 실득점을 기록했다. 수비수 김진호와 김영빈 역시 높은 결정력을 보였다.

위치 선정 능력을 통해 순도 높은 결정력을 과시한 선수로는 대구 고재현이 뽑혔다.

고재현은 K리그1에서 가장 높은 '슈팅당 xG' 수치(평균 0.195)를 기록했다. 이는 슈팅 1번당 득점 확률이 20%에 가까웠다는 의미다. 고재현은 리그 32경기에서 13골을 넣으며 팀 내 최다 득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골 결정력이 가장 약한 팀은 FC서울이었다.

FC서울은 기대득점 대비 실득점 수가 가장 낮은 팀으로 나타났다. FC서울은 기대득점 대비 7.8골을 놓치며 최소 득점 2위 불명



예를 안았다. FC서울은 리그 12개 팀 중 6번째로 높은 기대득점 값을 기록했음에도 최소 득점 2위가 됐다. FC서울보다 더 적은 골을 넣은 팀은 꼴찌 성남FC뿐이다.

중앙지역 패스 면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으며 압박 강도에서도 2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이를 골로 연결하지 못했다. 결국 FC서울은 지난해 12개 팀 중 9위에 그쳤다.

FC서울은 패스, 전방 패스, 수비지역 패스, 뉴시스



## 심상찮은 김민재 종아리...월드컵 부상 재발했나

나폴리 이적 후 경기 중 교체 처음

나폴리 감독 "몇 달 동안 잃을 수도"

월드컵 우루과이전 부상 재발 가능성

우승 분수령 14일 유엔투스전 주목

완치된 듯 했던 김민재(27·나폴리)의 종아리가 또 말썽이다. 2022 카타르월드컵 때 처음 발생한 근육 부상이 재발 기미를 보이면서 장기화 우려가 제기된다.

김민재는 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제노바 루이지 페라리스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세리에 A 17라운드 삼프도리아전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45분 활약 후 동료 라흐마니와 교체됐다.

나폴리 이적 후 김민재가 선발 출전 후 교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파레티 나폴리 감독은 김민재 부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스팔레티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김민재는 근육이 경직되는 걸 느꼈다"며 "우리는 그를 몇 달 동안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민재는 경

기 템포를 되찾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의료진의 지시를 따랐다"고 덧붙였다.

정황상 카타르월드컵 때 입은 근육 부상이 재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재는 지난해 11월24일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루과이와의 대회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후반 18분 우루과이 공격수 다르윈 누녜스를 저지하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종아리를 다쳤다. 2차전 가나전까지 치른 김민재는 부상이 악화돼 3차전 포르투갈전에는 결장한 바 있다.

스팔레티 감독이 장기 부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 역시 불안한 대목이다. 스파레티 감독은 몇 달 동안 김민재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가 무리할 경우 회복에 수개월이 걸리는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나폴리가 예방 차원에서 김민재를 아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민재가 우승 경쟁의 분수령이 될 오는 14일 유엔투스(리그 2위)전에서 건재를 과시할지 주목된다.

뉴시스

## 스코틀랜드 셀틱, 전북에 조규성 이적료 45억 제의설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명문 구단 셀틱이 조규성 소속팀 전북현대에 이적료 45억원을 제의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9일 "셀틱이 한국 스트라이커 조규성을 영입하기 위해 이적료 300만 파운드(약 45억원)를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셀틱은 영입 대상을 찾기 위해 스카우트들을 한국과 이란, 아랍에미리트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조규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셀틱은 이미 일본 J리그에서 고바야시 유키, 이와타 토모키 등을 영입했고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는 캐나다 출신 측면 수비수 알리스타어 존스톤



을 데려왔다.

2022 카타르월드컵 후 유럽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조규성은 셀틱 외에 이재성의 소속팀인 독일 마인츠로부터도 이적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조코비치, 새해 첫 대회 정상...3시간10분 혈투 끝 승리

LPGA 투어서 활약하는 넬리 코다 동생 꺾고 우승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5위)가 2023시즌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개막전에서 정상에 섰다.

조코비치는 8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ATP 투어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1차 대회 단식 결승에서 3시간10분에 걸친 혈투 끝에 세바스찬 코다(미국·33위)를 2-1(6-7(8-10) 7-6(7-3) 6-4)로 꺾었다.

약 2년 만에 선 호주 코트에서 거둔 승리다.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출전을 위해 지난해 1월호 호주 멜버른 공항에 도착한 조코비치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입국하지 못했다.

호주 연방정부를 상대로 두 차례 소송을 벌였지만, 조코비치는 결국 추방 조치돼 고국 세르비아로 돌아가야 했다.

호주가 지난해 7월 코로나19 관련 입국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조코비치의 호주오픈 출전 여부는 불투명했다. 호주 현행법상 비자 취소로 국외 추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3년간 입

국이 금지되기 때문.

호주 정부가 조코비치의 입국을 허가하면서 조코비치는 약 1년 만에 호주 땅을 밟았다.

조코비치가 호주에 있는 코트에서 경기를 치른 것은 이번 대회가 2021년 2월 호주오픈에서 우승한 이후 2년 만인데, 또 우승을 맛봤다.

조코비치는 오는 16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대회 호주오픈에 출전한다.

아쉽게 조코비치에 패한 코다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제시카 코다, 넬리 코다의 동생이다.

코다 남매의 아버지는 1998년 호주오픈 단식에서 우승하고 세계랭킹 2위까지 올랐던 페트르 코다다.

함께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결승에서는 아리나 사발렌카(벨라루스·5위)가 린다 노스코바(체코·102위)를 2-0(6-3 7-6(7-4))으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WTA 투어 ASB클래식에서는 코코 고프(미국·7위)가 레베카 마사르바(스페인·130위)를 2-0(6-1 6-1)으로 물리치고 새해 첫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 '짜꿍' 양의지, 이제 적으로...구창모 "삼진으로 잡고 싶어"

4년간 NC서 뛰었던 양의지, 두산 이적 2016~2018 양의지 상대 피안타율 0.467 WBC 대표팀 함께...정규리그에선 적

NC 다이노스 좌완 영전 구창모(26)가 올해부터는 든든한 선배이자 '짜꿍'이었던 양의지(36·두산 베어스)를 적으로 만난다.

지난 4년 동안 호흡을 맞추면서 배운 것이 많았다는 구창모는 "양의지 선배를 삼진으로 잡고 싶다"면서 맞대결을 기대했다.

2015년 입단할 때부터 왼손 에이스 기대주로 손꼽히는 구창모는 좀체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선발로 기회를 받았다가도 부진 탓에 불만을 오갔고, 부상도 잦았다.

구창모는 2019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승수를 거두며 조금씩 두각을 드러냈다. 2019시즌 막판 허리 피로 골절로 포스트시즌과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대표팀 출전을 포기했지만,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도 부상 때문에 규정이닝을 채우지 못했으나 아프지 않을 때에는 빼어난 투구를 펼쳤다.

구창모는 2020년 왼쪽 전완부 염좌 및 미세 골절로 전례에서 이탈하기 전까지 15경기에서 9승 무패 평균자책점 1.55의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

왼팔 부상으로 재활을 이어가느라 2021시즌을 통째로 날린 구창모는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이 겹쳐 지난해 5월에야 복귀했지만, 1군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호투를 이어갔다. 지난해 구창모는 11승 5패 평균자책점 2.10으로 활약했다.

구창모가 한 단계 성장하며 NC 에이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내 최고 포수인 양의지의 도움이 컸다는 평가다. 양의지의 노련한 리드 속에 구창모는 국내 정상급 좌완 투수로 무럭무럭 자랐다.

최근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창모는 "양의지 선배님이 NC에 오신 뒤 야구에 눈도 뜨고 배운 점이 많았다"고 함께했던 시간을 돌아봤다. 양의지가 독려도 많이 해줬다는 것이 구창모의 말이다. 그는 "양의지 선배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내가 한국 야구의 미래다, 아프지 말고 던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구창모와 양의지는 올해 3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는 NC 시절처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둘 모두 WBC 대표팀 30인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정규시즌이 시작되면 마운드와 타석에서 서로를 마주해야 한다. 2022시즌이 끝난 뒤 프리에이전트(FA)가 된 양의지는 4+2년, 최대 152억원을 받고 전정팀 두산으로 이적했다. 양의지가 NC로 이적하기 전 둘은 투타 대결을 한 적이 있다. 구창모가 1군에 데뷔한 2016년부터 양의지가 2018시즌을 마친 뒤 FA가 돼 NC와 계약하기 전까지는 서로가 적이었다.

구창모는 양의지를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양의지는 2016~2018년 구창모를 상대로 타율 0.467(15타수 7안타)을 때려냈다. 구창모는 "양의지 선배님이 예전 두산에 계실 때 상대전적이 좋지 않았다. 만날 때마다 호되게 혼나 기억 밖에 없다"고 떠올렸다. 올해부터는 상대전적을 반대로 만들고 싶



는 것이 구창모의 각오다.

그는 "이제 내가 상대전적에서 우세를 점하고 싶다. 예전 상대전적을 반대로 바꾸고 싶다"면서 "무조건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물론 삼진으로 잡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배님도 제 공을 많이 받아놔서 저에 대해 잘 알 것이다. 서로를 잘 아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라 기대가 된다"며 "선배한테 배운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올해부터 구창모의 짜꿍은 박세혁이다. 양의지를 떠나보낸 NC는 박세혁으로 빈 자리를 메웠다. 양의지가 NC로 이적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두산 주전 포수로 뛴 박세혁은 NC와 4년, 총액 46억원에 FA 계약을 맺었다.

구창모는 "(박)세혁이 형은 두산에서 좋은 투수들과 잘 했던 포수"라며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프링캠프 때부터 호흡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